

면양정의 내력과 공간인식 고찰

김현진*

차 례

- I. 머리말
- II. 면양정의 내력
 - 1. 명칭의 의미
 - 2. 내력
- III. 면양정에 대한 공간인식
 - 1. 無愧不作的 지향처
 - 2. 湖南詩壇의 선도 공간
 - 3. 湖南最勝處와 看人看世의 심미 공간
 - 4. 御製詩題의 배경처
- IV. 결론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면양정의 내력과 공간인식을 고찰한 것이다. 정자이름 ‘旣仰’의 의미는 맹자의 ‘君子三樂’에서 차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호연지기를 기반으로 사육을 극복하여[克己] 부끄럼이 없는[無愧]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투영한 것이다. 면양정은 송순이 1533년 현 담양군 봉산면 제월봉에 3칸 초정으로 지은 누정이다. 1552년 1차 중수가 있었다. 이후 정유재란(1597) 때 소실되었는데, 1610년 이전에 복원된 것으로 추정되며, 1654년 후손들이 또 중수하였다. 그 뒤 1700년대와 1800년대는 기문과 제영시를 통해 존재가 확인된다. 그러다 1930년에 중수하였고, 1972년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 보수되었다가 1989년 즈음 마지막으로 중수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한다.

면양정의 공간은 네 가지로 인식된다. 첫째, 無愧不作的 지향처이다. 군자지향과 자연합일 추구한 송순의 자연 즐기는 道義의 삶과 직결되고, 이는 맹자의 浩然之氣와 결합 된다. 이를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

정자명 ‘면양’의 의미와 연결해보면, 호연지기를 기반으로 사욕을 극복하여 부끄럼이 없는[無愧]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湖南詩壇의 선도 공간이다. 송순의 시조와 가사작품은 호남시단을 비롯한 담양지역 문인들에게 가사작품 창작의 動因이 되었고, 그의 면양정은 호남시단을 이끄는 중추 공간이었다. 셋째, 湖南最勝處와 看人看世의 심미 공간이다. 호남의 최고 조망을 자랑하는 면양정에 오른 시인들은 그 공간에서 승경을 조망하고 송순을 비롯한 선현들을 회고한 소회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담아내려는 심미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넷째, 御製詩題의 배경처이다. 면양정은 송순의 과거급제 60주년, 이른바 회방연을 기념하여 모인 호남 대표 사람들이 그를 가마에 태운[荷輿俛仰亭] 고사가 있다. 正祖는 호남의 재주 있는 선비들에게 명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고자 그 고사를 활용하여 道科의 詩題로 삼았다. 이후로 이 일은 후인들에게 지속해서 회자되었다.

핵심어 : 송순, 면양정, 공간인식, 無愧不作, 호남시단, 호남최승처, 심미 공간, 御製詩題

I. 머리말

담양지역의 누정은 삼국시대 滌暑亭을 필두로 한다. 이후 조선 초기에는 全新民의 獨守亭, 金自修의 上月亭 등이 세워졌고, 16세기에는 瀟灑園, 俛仰亭, 環碧堂, 棲霞堂, 息影亭, 松江亭 등이 창건되었으며, 2000년도의 洗心亭 건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누정이 건립되었다. 이들 중 현전하는 것은 39개소로 私設 누정이 대부분이며, 현전하지 않지만 문헌 속에 등장하는 것이 37개소이다. 이들 누정은 시문학의 산실, 강학처, 원림, 齋室, 소요자적처, 향약 시행처, 종회소, 射亭 등의 성격을 지닌다.¹⁾

이처럼 담양지역은 누정문화가 융성하였고, 그 누정문화의 한 축은 국문학에서 주목받는 누정가사와 누정시조를 비롯해 漢詩로 지어진 樓亭題詠 등의 누정문학이 담당하였다. 누정문학의 창작 공간이 된 누정으로는 면양정, 식영정, 송강정, 환벽당, 서하당, 몽한각 등이 있다.

1) 김신중 외, 『담양의 누정기행 누정』, 담양문화원, 2009, 8~21쪽 참조.

이 중 호남제일의 조망처²⁾이고 江湖歌道の 산실³⁾로 평가받는 면양정은 宋純(1493-1582)이 창건하였다. 송순은 원집과 속집을 통틀어 총 10권 5책의 『면양집』을 남겼는데, 그 속에는 「侏仰亭歌」, 「侏仰亭短歌」, 「侏仰亭雜歌」 등의 가사와 한역시조 및 한시 560수 등의 문학작품이 실려 있다.

이러한 송순의 작품 및 「侏仰亭三十詠」 제영시에 대한 가사문학과 한문학 방법의 문학 연구는 수십 편이 있다. 한편 누정 면양정에 대한 연구는 건축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있고,⁴⁾ 조경학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 있다.⁵⁾ 또 누정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것도 있고,⁶⁾ 沈仲良의 「侏仰亭記」를 바탕으로 면양정 명칭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 있는데⁷⁾ 여기에는 심중량의 『荀子』 원문 인용에 대한 검증 오류가 있다. 그리고 문화사적으로 無等山圈의 누정문학을 고찰한 것이 있다.⁸⁾ 이를 보면 아직 면양정의 내력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면양정이란 공간에 대한 오롯한 인식 정의가 미흡하다. 이에 본고는 면양정에 대한 명칭의 의미와 내력을 정리하고 면양정 공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李光秀, 『玉山集』 卷4, 「侏仰亭重修記 庚午」. “至若斯亭也 非徒風景擅南州 賢人起亭 群賢講道 後賢寓慕”

3) 1989년 면양정 경내에 설립된 侏仰亭重修記續碑의 「侏仰亭重修記」. “湖南에서의 江湖歌道를 昌道大成시킨 産室이기도 하다.”

4) 김승현, 「조선시대 정자건축의 시지각적 분석에 관한 연구: 자연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동관, 「'간(間)' 개념에 의한 亭子空間의 연구: 주거건축 內 亭子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유영광, 「無等山 周邊 亭子の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5) 이현우, 「16~18세기 누정 문화경관의 의미론적 해석」,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류 쩌, 「한국 16~17세기 전통원림(園林)의 시지각적 경관 분석: 한국 전남 담양지방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김두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본 면양정 입지에 관한 연구: [면양정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18권 2호, 한국정원학회, 2000.

6) 「누정관계 자료」, 『호남학연구』 제14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85.

7) 조태성, 「侏과 仰, 두 개의 시선-〈면양정가〉의 감성적 독해」,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이상원, 「송순의 면양정 구축과 〈면양정가〉 창작 시기」,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8) 박명희, 「無等山圈 누정문학의 문화지도」, 『국학연구논총』 제16집, 태민국학연구원, 2015.

II. 면앙정의 내력

현 담양군 봉산면 제월봉에 자리한 면앙정의 주인은 송순이다. 그의 자는 守初·誠之이고, 호는 企村·俛仰亭·新平이며, 시호는 肅定이다. 그는 현 담양군 봉산면 상덕마을[당시 추성군 봉산면 상덕리 기촌마을]에서 태어났고, 知止堂 宋欽(1459-1547)과 訥齋 朴祥(1474-1530) 등에게 수학하였다. 27세 때인 1519년(중종14) 과거급제하였고, 承文院權知正字가 되었다. 이후 藝文館檢閱, 司諫院正言, 兵曹佐郎을 거쳐 議政府舍人을 지냈다. 그러다 그는 41세 때인 1533년(중종28) 金安老(1481-1537)의 전횡을 보고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면앙정을 지었다.⁹⁾ 1537년(중종32) 弘文館應敎에 제수되어 다시 출사한 그는 1553년(명종8) 善山都護府使,¹⁰⁾ 1558년(명종13) 全州府尹 등을 지냈고, 77세 때인 1569년(선조2) 議政府右參贊에 보임되었다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50년 간 벼슬길의 出處를 반복하는 동안 면앙정은 그에게 遊息과 교유의 장소이자 문학창작의 공간이었다.

1. 명칭 의미

‘俛仰’ 이름을 설명한 기록부터 우선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송순이 善山府使를 마치고 돌아온 1555년부터 1558년 全州府尹으로 나가기 전에 지은 것으로 유추되는 「俛仰亭歌三言」이 있는데,¹¹⁾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宋純, 『俛仰集』 卷5, 부록 「議政府右參贊俛仰亭先生年譜」, “癸巳嘉靖十二年 中宗二十八年 先生四十一歲 ○安老既柄國得志 (중략) 先生憤然而折其惡 亦自分必敗 就鄉莊創築俛仰亭”

10) 『면앙집』 권5 「연보」에는 1552년(임자) 선산도호부사에 제수되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상원의 「송순의 면앙정 구축과 <면앙정가> 창작 시기」(『한국시가문화연구』 제35집, 2015) 논문 263쪽에서 밝혀 놓은 것을 근거로 한다.

11) 창작 연도는 이상원의 「송순의 면앙정 구축과 <면앙정가> 창작 시기」(『한국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271쪽을 참조하였다.

내려다보면 땅이고	俛有地
올려다보면 하늘이네	仰有天
정자가 그 가운데라	亭其中
흥취가 호연하다	興浩然
풍월을 부르고	招風月
산천을 들이니	挹山川
청려장 짚고서	扶藜杖
일생을 보내리	送百年 ¹²⁾

둘째, 송순이 지은 「俛仰亭贊」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로는 땅 위로는 하늘, 사이에 작은 정자가 있다. 노인은 날마다 그곳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克己의 노력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진실로 浩然之氣가 아니라면 아래에 펼쳐진 땅과 위에 서린 하늘을 굽어보고 우러러본들 어찌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¹³⁾

셋째, 奇大升(1527-1572)은 「俛仰亭記」[2]에서 송순이 직접 면양정 이름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록해 두고 있다. 이는 전술한 「俛仰亭歌三言」과 비교하면 글자 출입만 있을 뿐 내용은 같다.

공은 일찍이 정자의 이름을 지은 뜻을 계시하여 객에게 보여 주었으니, 그 뜻은 “굽어보면 땅이 있고 우러러보면 하늘이 있는데, 이 언덕에 정자를 지으니 그 흥취가 호연하다. 풍월을 읊고 산천을 굽어보니 또한 나의 여생을 마치기에 족하다.”는 것이었다. 공의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 공이 면양에 자득한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12) 宋純 『俛仰集』 卷3, 「俛仰亭歌 三言」.

13) 宋純 『俛仰集』 續集 권1, 「俛仰亭贊」. “下壤上穹 小亭子于其中 老夫日俯仰於兩間 而中心無愧 自信克己之功 苟非氣養浩然 下際于地 上蟠于天 雖欲俯仰 安得無愧於心焉”

14) 奇大升, 『高峯集』 卷2, 「俛仰亭記」[2]. “公嘗揭其名亭之意以示客 其意若曰 俛焉而有地也 仰焉而有天也 亭于茲之丘 其興之浩然也 招風月而挹山川 亦足以終吾之餘年也 味斯語也 公

넷째, 면양정 창건 당시를 기록한 「연보」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주를 굽어보고 우러러본다는 뜻이다.¹⁵⁾

다섯째, 담양부사 李錫禧(1694-1763)가 1758년(영조34)에 편집한 담양 최초의 읍지 『秋成誌』 「錡谷面」의 인물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정부우참찬 송순은 (중략) 역대로 네 조정을 섬기고 물러나 전원에서 노년을 보냈다. 집 동산 벼랑 위에 정자를 지어 이름을 俛仰이라 하는데, 대개 우주를 굽어보고 우러러본다는 뜻이다.¹⁶⁾

여섯째, 담양부사를 지낸 沈仲良(1658-?)은 1700년(숙종26)에 지은 「면양정기」¹⁷⁾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荀子が 말하기를 “伯夷는 고개 들어 하늘을 보고서 하늘의 맑음[淸]을 얻어 그 뜻을 길렀고, 柳下惠는 고개 숙여 땅을 보고서 땅의 순조로움을 얻어 그 화평함[和]을 길렀다. 마침내 伯夷는 夷 이름을 바꾸어 仰叟라 하였고, 柳下惠는 惠자를 추구하여 俛翁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지팡이에 새기기를 仰鑱라 하고 책상을 俛時라고 하였다. 지팡이로 책상을 두드리며 노래하기를 ‘仰叟여, 俛翁이여, 나의 스승이여, 나의 스승이여!’라고 했다.”고 하였다. 내가 어릴 적에 책을 보다 이 말을 만나고서 소름이 돋아 기이하게 여기며 마음에서 잊지 않았다. 지금 이 俛仰亭에서 거둬 그 점을 느낌이 있으니, 말이 없을 수가 없다.

아! 담양 땅의 俛仰亭은 中宗조와 明宗조 명현 송공 면양노인의 거처이다. 어떻게 노인은 俛仰을 정자에 내걸고서 俛仰을 호로 삼았을까? 정자가 면양노인의 거

之所以自得於俛仰者 蓋可想也”

15) 宋純 『俛仰集』 卷5, 부록 「議政府右參贊俛仰亭先生年譜」. “癸巳嘉靖十二年 中宗二十八年 先生四十一歲 (중략) 就鄉莊創築俛仰亭, 卽俛仰宇宙之義也”

16) 李錫禧 編 『秋成誌』 「錡谷面」 인물조. “四宰宋純 (중략) 歷事四朝 退老林下 作亭家園崖上 名曰俛仰 蓋俯仰宇宙之義也”

17) 宋純 『俛仰集』 卷7, 沈仲良 撰 「俛仰亭記 乙未秋 當云庚辰肅宗二十六年」.

처가 되니, 따라서 면양으로 계시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仰鑿 지팡이와 俛時 책상의 뜻일 것이다. 면양노인이 이에 지팡이 짚거나 책에 심취해 있을 적에 이 정자에서 하늘을 우리르고 땅을 굽어본 것은 아마도 순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¹⁸⁾

이 여섯 가지를 구분해보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송순이 직접 거론한 것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는 俛地, 仰天, 無愧, 克己, 浩然之氣이다. 넷째와 다섯째는 서로 똑같은 내용이고 俛仰과 宇宙가 핵심어로서, 앞의 송순이 언급한 天地 대신 宇宙를 써서 규모를 확장했을 뿐 의미는 다르지 않다.

한편 여섯 번째 인용문에서 보듯, 심중량은 荀子의 말을 인용하면서 ‘면양’의 의미를 淸聖 伯夷의 지팡이 仰鑿와 和聖 柳下惠의 책상 俛時的 뜻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면양’이 갖는 의미를 해석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백이의 淸과 유하혜의 和에서 비롯되었고, 하늘의 도를 섬겨 선비의 마음을 다잡고자 함과 땅의 순리를 좇아 행동하는 바에 거리낌이 없겠다는 다짐으로 본 것이다.¹⁹⁾ 다른 하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수기적 자세 표방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致君澤民하겠다는 치인적 자세를 아우르려는 송순의 경세적 태도의 함축으로 본 것이다.²⁰⁾ 그런데 『荀子』 책에는 심중량이 인용한 저 구절이 없다. 게다가 백이는 『순자』에 언급되지도 않고, 유하혜의 경우는 「大略」에 “궁궐의 문지기들과 같은 옷을 입어도 의심받지 않는 것은 하루아침에 소문난 것이 아니다.”²¹⁾라는 딱 한 구절만 나온다. 이의 淸나라 건

18) 宋純, 『俛仰集』 卷7, 沈仲良 撰, 「俛仰亭記 乙未秋 當云庚辰肅宗二十六年」. “荀子曰 伯夷仰而視天 得天之淸 以養其志 柳下惠 俛而視地 得地之順 以養其和 遂易夷名曰仰叟 追惠字曰俛翁 因銘其杖曰仰鑿 其丌曰俛時 則以杖叩丌而歌曰 仰叟乎 俛翁乎 吾師乎 吾師乎 余少日 入黃卷值斯語 竦然異之 於心不忘 今於斯亭也 重有感焉 則不能無言矣 噫 潭之擘曰 俛仰亭者 中明朝名賢宋公俛仰叟之居也 豈叟以俛仰揭亭而因以號俛仰乎 亭爲俛仰叟之居而從以揭俛仰乎 其於杖於丌之義乎 叟乃扶杖隱丌 俛仰乎斯亭乎 則殆荀子之不及焉”

19) 조태성, 「俛과 仰, 두 개의 시선-〈면양정가〉의 감성적 독해」,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339쪽 참조.

20) 이상원, 「송순의 면양정 구축과 〈면양정가〉 창작 시기」,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252쪽 참조.

류제가 중국 역대 전적을 모아 편찬한 四庫全書를 비롯해 현 중국 지식포털 바이두[百度]에도 심중량이 인용한 문구는 검색되지 않는다. 이처럼 심중량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논거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그의 설로 ‘면양’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면양정의 ‘면양’이 갖는 의미의 출처는 『맹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맹자는 君子三樂을 말하면서 “위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굽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二樂也]²²⁾”라고 하였다. 그리고 程子是 사람이 능히 자신의 사욕을 이기면 우러러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다.²³⁾ 이를 보면, 결국 송순이 생각하는 俯仰은 「면양정찬」에서 상세히 기술한 것처럼, 浩然之氣를 기반으로 克己를 통해 無愧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담은 것이라 하겠다.

2. 내력

면양정은 1533년(명종8)에 草亭으로 지어졌다. 이에 앞서 송순은 면양정을 지을 정자 터를 1524년(중종19) 郭氏에게서 구매하였지만, 벼슬살이하느라 건축이 미루어졌다.²⁴⁾ 창건 당시 면양정은 벼랑 위에 3칸 집이었고, 사면을 비우고 난간을 세웠으며, 주변에는 대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였다.²⁵⁾ 여기서 5년 동안 노닐던 송순은 다시 출사하였고, 1551년 귀양에서 풀려나 돌아오기까지 면양정은 비바람에 방치되었다.

21) 『荀子』 「大略」. “柳下惠與後門者同衣而不見疑, 非一日之聞也.”

22) 『맹자』 「진심장 상」 제20장.

23) 朱熹, 『맹자집주』 「진심장 상」 제20장 제2절 朱子註. “程子曰 人能克己 則仰不愧俯不作 心廣體胖”

24) 奇大升, 『高峯集』 卷2, 「俯仰亭記」 [1]. “公爲余言曰 昔亭之未有也 有郭姓者居之 (중략) 僕於甲申年間 以財貨之 (중략) 僕亦愛其溪山之勝 而繫官在朝 不敢引身 癸巳歲 遞職還鄉 始縛草亭 以蔽風日 優遊五載 旋復棄去”

25) 奇大升, 『高峯集』 卷2, 「俯仰亭記」 [1]. “亭凡爲屋三間 駕長樑 樑倍於楣 故視其中 端豁平正 而其廊隅翼如也 虛其四面而欄檻之 檻外形皆微蹶 而西北隅尤陡絕 屏以密竹 蕭穆蔭蔚”

1차 중수는 1552년 담양부사 吳謙(1496-1582)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²⁶⁾ 이 당시의 전말은 1560년 7월 7일 소세양이 지은 「俛仰亭記」에 상세하다.²⁷⁾ 그가 기문을 짓게 된 배경은 全州府尹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송순이 당시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한 것을 편지로 보내 요청했기 때문이다.

애초 초정 몇 칸을 지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훼손되었다. 지금 호조참판(民部尙書) 吳謙[字 敬夫] 공은 부모 봉양을 위해 담양군수로 나간 적이 있다. 임자년(1552)[명종7] 봄 내가[소세양] 오겸[경부]을 데리고 함께 면양정에 올라 나무 그늘로 가서 앉았는데, 오겸이 황폐해진 면양정을 중수하기를 힘써 권하고 또 그 비용을 돕겠다고 하였다. 그는 곧 관아의 서리를 보내 재물을 초당에 보내주었으니, 于頔이 符戴山人에게 산을 살[買山] 돈을 준 것과 같은 뜻이다. 면양정 옛 모습을 따라 넓혀 2칸짜리 정자를 지었다. 또 그 아래에 터를 평평하게 하여 3칸짜리 집을 지었다. 그 안에 서화를 모아두고, 낮은 울타리를 두르고, 화훼를 즐지어 심었다. 이에 더위와 추위에 적절하고 遊息할 곳이 있게 되었다.²⁸⁾

당시 오겸은 부모봉양을 위해 담양부사로 왔고, 황폐해진 면양정의 중수를 권하며 그 비용을 대었다. 오겸의 이러한 자세를 소세양은 산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리러 온 부대산인에게 100만 전을 내준 우적에 견주었다. 그리하여 2칸짜리 면양정이 완성되고, 또 그 아래에 3칸짜리 집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수된 면양정은 정유재란(1597) 때 소실되었다.²⁹⁾ 이후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2차 중수가 있었던 듯하다. 왜냐하면 1610년 2월 담양부사로 부

26) 奇大升, 『高峯集』 卷2, 「俛仰亭記」[1]. “辛亥 蒙恩放歸 宿昔之抱 可以少償 而財力短乏 又無以爲計 一日 府使吳公謙 適來同登 勸僕成之 且許相助 遂於壬子春 起其役 不幾月而功訖”

27) 蘇世讓, 『陽谷集』 卷14, 「俛仰亭記」. “夫守初製錦浦府 三載政成 將旋軫而歸也 具錄山川之源委 經始之首尾 簡我求亭記 余迺纂次其語而復之 嘉靖庚申七夕 某記”

28) 蘇世讓, 『陽谷集』 卷14, 「俛仰亭記」. “初作草亭數間 歲久頽毀 今民部尙書吳公謙敬夫 爲養出守是府 壬子春 拉敬夫同登 就樹陰而坐 敬夫力勸起廢 且助其費 卽王錄事 寄草堂贊 于允元與買山錢之意也 因舊制敵之 構亭三楹 又於其下 夷其址 營屋四楹 聚書畫其中 繚以短垣 列植花卉 於是 涼燠得宜 游息有所”

29) 宋純, 『俛仰集』 卷7, 金應祖 撰, 「俛仰亭雜錄序」. “俛仰亭者 故參贊企村先生宋公所構 (중략) 亭火於南亂”

임한 李安訥(1571-1637)은 7월 상순에 면양정에 올라 벽에 걸려있는 시판에 대한 차운시를 남겼기 때문이다.³⁰⁾ 그 뒤로 1614년과 1623년에도 면양정 존재가 확인된다.³¹⁾ 또 1640년 7월 7일 면양정을 유람하며 지은 李行進(1597-1665)의 시³²⁾ 및 1640년 9월 16일 전라도를 유람한³³⁾ 許穆(1595-1682)이 지은 「宋相公簡牘帖跋」에서도 면양정 존재가 확인된다. 허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미년(1643) 봄에 영남 관찰사 林壇(1596-1652)이 동쪽을 순행하던 길에 바닷가로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나에게 면양정 송 상공의 편지 세 편이 든 서첩 하나를 보여 주었는데, 그 종이에 ‘林進士’, ‘林上舍’, ‘林正字’라고 쓰여 있었다. 모두 우리 외조 白湖公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략) 몇 년 전에 내가 호남을 여행하였을 때 담양에서 상공의 묘소에 참배하고 면양정에 올랐었다. 그러고는 그 자손을 방문하였다.³⁴⁾

허목은 1643년 봄에 임제가 보여 준 『宋相公簡牘帖』의 발문을 쓰면서, 몇 년 전 호남을 유람하면서 담양에 들러 면양정에 올랐다고 말하는데, 이 시기는 1640년 9월 16일 전라도 長興의 天冠山을 유람할 때를 말하는 듯하다.

3차 중수는 1654년 즈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金應祖(1587-1667)가 지은 「侏仰亭雜錄序」의 내용으로 확인된다.

30) 宋純 『侏仰集』 권7 雜錄, 「次侏仰亭韻 萬曆三十八年庚戌孟秋上澣 [李東嶽 本府使].

31) 宋純 『侏仰集』 권7 雜錄, 李景義 撰, 「次侏仰亭韻 萬曆四十二年甲寅○李晚沙○諱景義」. 여기서 만력 갑인년은 1614년이다.

宋純 『侏仰集』 권7 雜錄, 「次侏仰亭韻 天啓三年辛酉 [鄭崎翁 諱弘漢]. 여기서 천계 3년은 1623년이고, 신유년은 1621년이다. 본고는 연호를 중심으로 확정하였다.

32) 宋純 『侏仰集』 권7 雜錄, 「次侏仰亭韻 崇禎十三年庚辰孟秋七夕 奉家嚴來遊 方莅本府 子知務安 [李行進]

33) 許穆 『記言』 卷28 下篇, 山川下, 「天冠山記」. “(崇禎)十三年九月既望”. 이는 1640년 9월 16일을 가리킨다.

34) 許穆 『記言』 別集 卷10, 「宋相公簡牘帖跋」. “癸未春 嶺南觀察使林公巡行東邊 過余於海上 因示余以侏仰宋相公三簡牘一帖. 其紙面 書林進士 林上舍 林正字 皆指吾外祖白湖公云也 (중략) 數年前 穆嘗遊湖外 謁相公墓於潭陽 登臨侏仰亭 因訪其子孫”

면양정이 정유제란 때 왜구에 의해 불탔다. 후손들이 각자 제력을 내어 다시 지었다. 그런데 현판 새기는 일에 힘을 겨를이 없었다. 그러므로 퇴계, 하서, 고봉, 제봉의 시가 모두 벽에 걸리지 못했다. 내가[김응조] 담양부사로 와 사본을 구해 보고자 했는데도 구하지 못했다. 이에 면양선생의 외손 李晝 군에게 부탁하여 제 현들의 작품을 모아 1필로 기록하고서 「俛仰亭雜錄」이라 하였다.³⁵⁾

이 글은 1654년 무렵 후손들에 의해 면양정이 중건되었고, 당시 제현들의 현판은 아직 복구되지 못했음을 알려 준다.

이후의 면양정 존재는 1700년에 沈仲良이 지은 「면양정기」에서 확인된다. 송순이 1542년 전라도관찰사 때 쓴 글씨가 곡성현 동헌에 걸려있었다. 정유제란 이후 그 현판이 사라졌는데, 승려 道文의 우연한 수습에 의해 전해지게 되었다.³⁶⁾ 이 현판의 글씨는 『俛仰集』 卷2, 「次谷城東軒韻」[2]의 함련으로 “평생 사업의 마음은 오히려 커졌는데, 백 년 세월에 눈은 이미 어두워졌네.[平生事業心猶大, 百歲光陰眼已昏]”이다.³⁷⁾ 면양정에 올라 이 詩板을 본 심증량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유제란(1597)으로부터 지금 또 103년이 지났다. 임인년(1542)을 거슬러 올라 가면 위아래로 159년이다. 시판을 새롭게 칠하여 자획이 면양정의 처마 사이에서 완연하니, 매우 특별하다. 면양노인의 문장과 기세가 후손에게 점점 젓게 하니, 유

35) 宋純, 『俛仰集』 卷7, 金應祖 撰, 「俛仰亭雜錄序」. “俛仰亭者 故參贊企村先生宋公所構 先生嘗自作詩歌其勝 前後名賢韻士多續而和之 鏗梓滿壁 亭火於南亂 後來裔孫 各出力重構 而其於鐫板一事 力未遑焉 故如退溪, 河西, 高峯, 霽峯之詩 皆未揭壁 余來要賞寫本而亦未得 乃囑先生之外裔李君堂 揆合諸賢之作而錄于一帙 名之曰俛仰亭雜錄”

36) 宋純, 『俛仰集』 卷7, 沈仲良 撰, 「俛仰亭記 乙未秋 當云庚辰肅宗二十六年」. “其於谷城縣東軒 伊揭步武之華刻 後五十六年 邦有丁酉之兵 有山人道文 嘗學詩於叟者也 偶於道周 俛而有拾焉 匪食匪貝 別箇是一片枯木 數行剗削 而摩挲眼明 宛是吾師之墜子 則感集奇適 却立四顧 持歸古宅 兵鋒慘毒 而唯有十歲之孤兒 於焉畀付 守而傳之”

37) 宋純, 『俛仰集』 卷7, 沈仲良 撰, 「俛仰亭記 乙未秋 當云庚辰肅宗二十六年」. “板詩第二曰 平生事業心猶大 百歲光陰眼已昏 此眞俛仰叟俛仰以養之志乎”

宋純, 『俛仰集』 卷2, 「次谷城東軒韻二首」[2]. “中傍年來望不尊 一身隨處便成痕 平生事業心猶大 百歲光陰眼已昏 可笑驅馳勞病骨 不如歸去掩蓬門 他時詩取田園樂 月下清詩酒一樽”

집에서 찾을 수 있고 이 시판에서 증험할 수 있네.³⁸⁾

그 뒤로 면양정이 건재함은 1728년 담양부사 林光弼(1682~1743)이 정자에 오른 일,³⁹⁾ 1738년 광주목사 魚有鵬(1678~1752)이 편역에 걸린 퇴계 시에 차운한 일,⁴⁰⁾ 1742년 담양부사 申思迪(1683~?)이 정자에 오른 일,⁴¹⁾ 1774년 부사 洪鼎猷(1714~?)가 정자에 오른 일 등을 읊은 시의 제목에서 살필 수 있다.⁴²⁾

1800년대의 면양정 존재는 李最善(1825~1883)이 여름날 올라갔다는 것,⁴³⁾ 鄭雲五(1846~1920)가 면양정에서 밤에 술 마신 일,⁴⁴⁾ 李潤煌(1848~1921)이 고을 수령과 함께 올라간 일⁴⁵⁾ 등을 읊은 시의 제목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1930년 면양정이 중수되었다. 이는 1654년 3차 중수 이후 중수 관련 기록상으로는 4번째에 해당하며, 그 중수 내용은 李光秀(1873~1953)가 지은 「俛仰亭重修記 庚午」에 실려 있다. 이광수는 현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長田마을에서 태어났고, 1900년 성균관박사에 제수되었으며, 羅喆(1863~1916)[羅寅永], 吳基鎬(1863~?) 등과 함께 을사오적암살단에 가담하였고, 蘆沙 奇正鎭의 諡狀과 高山祠 건립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기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산천초목은 모두 정체가 남아 있는데, 정자만 차마 황폐하게 두지 못해 훼손을 따라 고친 것이 지금까지 100년 되었다. 바람맞은 양쪽 벽은 바야흐로 무너질까 걱정이었다. 방승 承模가 유독 근심에 싸여있다가 燻模씨와 柳義迪에게 가서 알리고 담양 및 도내 연원고가와 논의하여 역량껏 돈을 추렴하고 제목을 바꾸어 중

38) 宋純, 『俛仰集』 卷7, 沈仲良 撰, 「俛仰亭記 乙未秋 當云庚辰肅宗二十六年」. “今又百有三年 遡壬寅 上下一百五十九年 粉藻維新 字畫宛舊於俛仰之櫺間 斯已奇矣 叟之文章氣脈 涓涓流漸於後昆 乃能探摯乎遺集 證參乎斯板”

39) 宋純, 『俛仰集』 권7 雜錄, 林光弼 撰, 「登俛仰亭贈主人 戊申 [林光弼 本府使].

40) 宋純, 『俛仰集』 권7 雜錄, 魚有鵬 撰, 「敬次俛仰亭壁上退陶先生 戊午秋 [魚有鵬 光州牧使].

41) 宋純, 『俛仰集』 권7 雜錄, 申思迪 撰, 「登俛仰亭贈主人 壬戌秋 [申思迪 本府使].

42) 宋純, 『俛仰集』 권7 雜錄, 「登俛仰亭 細成一絕 請和諸君子 [洪鼎猷 甲午府使].

43) 李最善, 『石田集』 卷1, 「夏日登俛仰亭」

44) 鄭雲五, 『碧棲遺稿』 卷上, 「俛仰亭夜酌」

45) 李潤煌, 『蘿碧堂遺稿』 卷1, 「與本倅登俛仰亭」

수하고서, 내[李光秀]에게 그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⁴⁶⁾

이를 통해 면앙정이 1930년 이전 100년 동안 부분 수리를 진행해 와서 더 이상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중수 주관자 방손 宋承模가 宋燾模와 柳義迪과 논의하고, 일대의 연원 가문들이 협력하여 중수한 사실이 파악된다.

이후의 중수내역은 현재 면앙정 경내에 1989년 9월에 세운 俛仰亭重修記續碑를 통해 확인된다. 이 비석에 따르면 면앙정은 1972년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기록상 5차 중수는 1979년 전남도지사 張炯泰와 담양군수 安周慶의 주도로 도비와 군비로 보수하였다. 기록상 6차 중수는 1989년 즈음에 전남도지사 宋彥鍾[재임1988.10~1990.6]의 도비와 富國鐵鋼 회장 南綱南富益의 사재출연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중수된 면앙정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음력 2월 幸州奇氏 文憲公 종중에서는 기대승의 「면앙정기」(한국고전번역원 번역)를 朴景來의 글씨로 돌에 새겨 면앙정 경내에 세웠다.

Ⅲ. 면앙정에 대한 공간인식

1. 無愧不作의 지향처

전술한 것처럼 송순은 맹자의 ‘군자삼락’을 차용하여 자신이 지은 정자의 이름을 ‘俛仰’으로 하고, 거기다 無愧의 삶 지향을 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가 추구한 방법을 면앙정을 소재로 창작한 작품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46) 李光秀, 『玉山集』 卷4, 「俛仰亭重修記 庚午」. “至若斯亭也 非徒風景擅南州 賢人起亭 群賢講道 後賢寓慕 山川草木 皆留精彩 有不忍廢荒 隨毀而改 今百年矣 風謝兩壁 方有崩漏之患 傍孫承模 獨抱憂傷 歸告燾模氏與柳義迪 議于本鄉 及省內淵源古家 隨力釀金易材 而重新之 使光秀 記其事”

1533년 면양정을 지은 송순은 그 소회를 다음과 같이 시조로 읊었다.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니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돌려두고 보리라⁴⁷⁾

그는 한마디로 風月主人, 즉 자연을 즐기려 한다. 이는 그가 「俛仰亭短歌七篇」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태어났으니, 거기서 시내와 산을 거느리고, 풍월과 더불어 늙어가리라.”⁴⁸⁾라고 거듭 강조한 데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자연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요구된다. 그래서 그는 우선 면양정 주변 공간부터 松竹으로 채웠다. 먼저 기대승의 「면양정기」[1]을 보면 “뻑뻑한 대나무가 병풍처럼 둘러 있다.[屏以密竹]”고 하고, 또 “대나무와 나무가 둘러싸고 있다.[竹木又回擁之]”라고 하였다. 송순 자신은 「면양정단가 칠편」[3]에서 “소나무 울타리에서 솟은 달은, 대나무 가지 끝에서 지네.[松籬兮昇月 至竹梢兮轉離]”⁴⁹⁾라고 하였다. 이 송죽을 송순 자신이 심었다고 볼 근거는 없으나, 그런 형세를 골라 면양정을 지은 것은, 四君子에 속하는 사물을 통해 君子지향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음으로 「俛仰亭 司諫罷歸後作」을 살펴보자.

길게 늘어선 산들이 너른 들 감싸고	百里群山擁野平
시내 임한 초옥이 다행히 막 완성됐네	臨溪茅屋幸初成
나는 백성들의 여망에 매이지 않았으니	此身不繫蒼生望
물가 갈매기와 우호를 맹약함이 마땅하네	宜與沙鷗結好盟 ⁵⁰⁾

47) 이를 한역화 한 것이 宋純 『俛仰集』 卷4, 雜著, 「俛仰亭雜歌二篇」[2]이다. 원문은 “經營兮十年 作草堂兮三間 明月兮清風 咸收拾兮時完 惟江山兮無處納 散而置兮觀之”이다.

48) 宋純 『俛仰集』 卷4, 雜著, 「俛仰亭短歌七篇」[1]. “俯則地兮 仰則天兮 兩位之際兮 從而生我兮 居焉緝溪山兮 風月將與偕兮老云”

49) 宋純 『俛仰集』 卷4, 雜著, 「俛仰亭短歌七篇」[3]. “松籬兮昇月 至竹梢兮轉離 玄琴兮橫按 巖邊兮猶坐 何許失伴兮 鴻雁而獨鳴兮云徂”

『列子』에 평소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부친의 부탁을 받고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가지자 갈매기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機心, 즉 마음속에 기미를 갖게 되면 갈매기도 알아챈다. 그래서 송순은 제4구를 통해 갈매기와 忘機之交를 염원함으로써, 사사로운 이익을 피하는 마음을 잊고자 한다. 이는 바로 자연합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양정에서 송순의 자연 즐길은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군자를 지향하고, 기심을 통한 자연합일을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군자지향과 자연합일 추구는 道義의 삶과 직결된다. 이 道義는 바로 맹자가 浩然章에서 언급하였듯이⁵¹⁾ 浩然之氣와 결합 된다. 이를 전술한 면양의 명칭 의미와 연결해서 보면, 송순은 도의와 결부한 호연지기를 기반으로 사욕을 극복하여[克己] 부끄럼이 없는[無愧] 삶을 살아가고자 한 것이다. 즉 송순은 無愧不作의 의식을 면양정에 투영한 것이다. 따라서 면양정은 바로 無愧不作의 지향처라 할 수 있다.

2. 湖南詩壇의 선도 공간

주지하다시피 송순은 호남 사림의 宗祖 朴祥(1474-1530)을 수학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하에서 河西 金麟厚(1510-1560), 高峯 奇大升(1527-1572), 霽峯 高敬命(1533-1592), 松江 鄭澈(1536-1593)을 배출하였다. 또 그는 石川 林億齡(1496-1568), 松川 梁應鼎(1519-1581), 棲霞堂 金成遠(1525-1597), 思菴 朴淳(1523-1589) 등과 교유하였다. 이들을 16세기 호남의 시조, 가사문학, 한시 문학 대표하는 湖南詩壇이라 일컫는다. 그 중심에 송순이 있고, 그의 정자 면양정은 호남 시단의 중추적 활동무대였다.⁵²⁾

송순은 <십년을 경영하여>, <풍상이 셋거 친 날에>, <꽃이 진다하고>, <추월산 가는 바람>, <늪었다 물러가자> 등의 시조를 지었다. 이러한 그의 시조는 한역되어 이른바 한역시조로 문집에 남아 전한다. 그 목록을 보면 <俛仰

50) 宋純, 『俛仰集』 卷1, 「俛仰亭 司諫罷歸後作」.

51) 『孟子』 「公孫丑上」 제2장: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52) 박영주, 『오늘의 가사문학』 제2호(가을호), 고요아침, 2014. 61쪽~64쪽 참조

亭短歌> 7수, <俛仰亭雜歌> 2수, <自上黃菊玉堂歌> 1수, <夢見主上歌> 1수, <致仕歌> 3수, <五倫歌> 5수, <傷春歌> 1수, <俛仰亭歌三言> 1수 등 21수이다.⁵³⁾ 이외 가사문학으로 <면양정가> 1수가 있다.

이러한 송순의 시조와 가사문학 작품은 그와 교류하는 호남시단을 비롯해 담양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지속적으로 가사작품이 창작되는 動因이 되었다. 그리하여 정철은 尹善道(1587-1671)와 더불어 조선조에 시조와 가사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⁵⁴⁾ 김인후는 <自然歌>, <白鷗歌>, <悼林士遂寃死作短歌> 등의 시조를 지었고, 고경명은 <청사검 두리메고>, <보거든 슬뭇거나> 등의 시조를 남겼으며, 기대승도 <호화코 부귀키야>라는 시조작품을 남겼다.

한편 송순을 포함하여 담양지역 가사 작가와 작품을 생몰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⁵⁵⁾

연번	작가	생몰년	작품	출전	형식 분류
1	宋純	1493-1582	俛仰亭歌	『俛仰集』雜歌	국한문혼용가사
2	李緒	1484-?	樂志歌	『夢漢零稿』	국한문혼용가사
3	梁山甫	1503-1557	愛日歌	瀟灑園事實 작품 실전	
4	鄭澈	1536-1593	星山別曲	松江歌辭	국한문혼용가사
			思美人曲		
			續美人曲		
			關東別曲		
5	鄭湜	1661-1731	竺山別曲	先組歌詞	국한문혼용가사
6	南極曄	1736-1804	忠孝歌	愛景堂遺稿	국한문혼용가사
			鄉飲酒禮歌		

53) 金成基, 「俛仰 宋純 時調의 傳承 研究」, 『時調學論叢』 제16집, 2000. 60쪽 참조

54) 金成基, 「俛仰 宋純 時調의 傳承 研究」, 『時調學論叢』 제16집, 2000. 51쪽 참조

55) 담양군지 보정관 발간위원회, 『潭陽郡誌』 下, 제5편 교육·문화, 희망문화사, 2002. 899쪽 <담양의 가사문학 일람표> 참조.

연번	작가	생몰년	작품	출전	형식 분류
7	柳道貫	1741-1813	思美人曲 庚戌歌	昆坡遺稿	국한문혼용가사
8	南碩夏	1773-1853	草堂春睡曲 白髮歌 思親曲 願遊歌	秋潭逸稿	국한문혼용가사
9	鄭海鼎	1850-1923	石村別曲 憫農歌	石村別曲	국한문혼용가사
10	작자 미상	미상	孝子歌	山陰世稿	국한문혼용가사
11	영천이씨	미상	영천이씨세덕가	이규현 소장	
작품 수 합계			20		

이를 보면 담양지역 가사문학은 16세기와 18세기에 집중되고 있지만, 15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11명의 작가가 20여 편을 생성함으로써, 가사작품의 창작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송순의 시조와 가사작품은 호남시단을 비롯한 담양지역 문인들에게 가사작품 창작의 動因이 되었다. 또 그의 면양정은 자신의 문학창작 활동 공간이자, 호남시단을 이끄는 중추 공간이었다. 따라서 면양정은 湖南詩壇의 선도 공간이라 하겠다.

3. 湖南最勝處와 看人看世의 심미 공간

기대승은 「면양정기」[2]에서 면양정의 조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산은 동북쪽에서부터 내달려 서남쪽으로 구불구불 이어진다. 이름은 용암산, 금성산, 용천산, 추월산, 용구산, 몽선산, 백암산, 불대산, 수연산, 용진산, 어등산, 금성산 등이다. 바위 벼랑은 기이하고 아름다우며, 이내와 구름이 아득히 끼어 놀랍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물은 용천에서 나와 읍내를 지나는 白灘이 굽이치며 가로 흘러 빙빙 감돌고, 옥천에서 발원한 餘溪는 물결 잔잔하고 맑으며 면양정 기슭 아래를 감돌아 백탄과 합류한다. 아득한 큰 들은 추월산 아래에서 시작되어

어등산 너머까지 펼쳐져 있는데, 그 사이에 구룡과 숲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⁵⁶⁾

이처럼 산과 물과 들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는 면양정의 풍광은 李光秀의 말처럼 호남의 최고 승경처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승경을 대표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임억령, 김인후, 이흥남, 박순, 고경명, 양대박, 윤행임 등이 각 1편씩 지은 <俛仰亭三十詠>이다. 그들의 감성을 붙잡은 소재는 다음과 같다.

연번	제목	연번	제목
1	추월산 푸른 절벽[秋月翠壁]	16	대추리 초동의 노래 [大秋樵歌]
2	용구산 저녁 구름[龍龜晚雲]	17	목산 어부의 피리소리[木山漁笛]
3	몽선산 푸른 소나무[夢仙蒼松]	18	석불사의 드문 종소리[石佛疏鍾]
4	불대산 낙조[佛臺落照]	19	칠천에 돌아온 기러기[漆川歸雁]
5	어등산 저녁비[魚登暮雨]	20	혈포의 새벽 안개[穴浦曉霧]
6	용진산 기이한 봉우리[湧珍奇峯]	21	심통사의 긴 대나무[心通脩竹] ([神通脩竹]으로도 기록)
7	금성산 저녁놀[錦城杏靄]	22	산성마을의 이른 호각소리[山城早角]
8	서석산 남기[瑞石晴嵐]	23	두 시내에 비친 가을달[二川秋月]
9	금성산성 옛 흔적[金城古迹]	24	칠만의 봄꽃[七繡春花] ([七曲春花]으로도 기록)
10	항아리바위의 우뚝한 모습[瓮巖孤標]	25	뒤 숲의 산새[後林幽鳥]
11	죽곡의 맑은 바람[竹谷清風]	26	맑은 물결에 뛰는 물고기[清波跳魚]
12	너른 들관의 갠 눈[平郊霽雪]	27	모래톱에서 조는 해오라기[沙頭眠鷺]
13	먼 숲에 피는 밥 짓는 연기[遠樹炊煙]	28	시내 굽이의 여뀌[澗曲紅蓼]
14	너른 들관의 익은 벼[曠野黃稻]	29	송림의 오솔길[松林細逕]
15	먼 포구의 모래사장[極浦平沙]	30	앞 시내의 작은 다리[前溪小橋]

56) 奇大升, 『高峯集』 卷2, 「俛仰亭記」[2]. “山自東北而馳 逸遷於西南者 曰瓮巖 曰金城 曰龍泉 曰秋月 曰龍龜 曰夢仙 曰白巖 曰佛臺 曰修緣 曰湧珍 曰魚登 曰錦城 其巖崖之詭麗 煙雲之縹緲 可愕而可嘉 水之出於龍泉者 過府治爲白灘 屈折橫流 汨潏淳洄 發於王川者名曰餘溪 漣漪澄滢 廻帶亭麓下 合於白灘 蒼茫大野 首起於秋月山下 尾撤於魚登之外 間以丘陵林藪 錯如圖畫”

호남최승처 면양정을 찾은 사람들은 그곳의 승경감상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깃들어 살았던 송순과 당대 선현들 그리고 그들의 荷興故事를 떠올리며 그 감회를 제영시로 남겼다. 이들 제영시는 대체로 정자 주인 송순이 지은 <면양정> 시를 차운하는데, 더러는 임억령, 양대박, 퇴계의 제영을 차운한 경우도 있다. 한국문집총간[1,200여종]과 한국역대문집총서[4,000여종]를 기준으로 검색되는 면양정 제영시의 작가, 작품, 작품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⁵⁷⁾

연번	작가	생몰년	문집명	작품명	작품수
1	宋純	1493-1583	『俛仰集』 권1	俛仰亭 司諫罷歸後作	1
			『俛仰集』 권1	次俛仰亭韻 二首○戊戌爲承旨時作	2
			『俛仰集』 권1	次俛仰亭韻 二首○府使朴亨麟首題	2
			『俛仰集』 권2	俛仰亭題詠	1
			『俛仰集』 권3	次沖和弟俛仰亭絕句 四首	4
			『俛仰集』 권3	復次俛仰亭韻 三首○有退溪次韻附下	3
			『俛仰集』 권3	俛仰亭歌 三言	1
			『俛仰集』 권4 雜著	新翻俛仰亭長歌一篇	1
			『俛仰集』 권4 雜著	俛仰亭短歌七篇	7
			『俛仰集』 권4 雜著	俛仰亭雜歌二篇	2
			『俛仰集』續集 권1	俛仰亭贊 庚辰二月	1
2	申光漢	1484-1555	『企齋集』別集 卷6	題宋承旨守初俛仰亭 用蘇二相彥謙公韻	1
3	蘇世讓	1486-1562	『陽谷集』 권1	俛仰亭 爲宋內相純題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蘇陽谷」	1

57) 개인 문집을 기준으로 정리하되, 『면양집』에 수록된 작품과 중복되는 것은 제목의 주석을 통한 상세정보 파악을 위해 함께 정리하였다. 면양정 주인 송순의 작품을 우선하고, 나머지는 생몰년 순으로 정리하였다.

연번	작가	생몰년	문집명	작품명	작품수
4	朴雲	1493-1562	『龍巖集』 권1	次宋企村純字遂初明府 二首○企村 又號俛仰亭 癸丑間 左遷本府春秋佳節 必至先生草廬 或奉邀江干 相與酬唱	2
5	林億齡	1496-1568	『石川詩集』 권4	俛仰亭 在潭陽문집총간에는 일부만 수록 ▶『俛仰集』 권7 雜錄 「俛仰亭三十詠[林石川]」	30
			『石川詩集』 권6	次俛仰亭韻 宋純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林石川]」	1
6	李潤慶	1498-1562	『崇德齋遺稿』 권2	和俛仰亭 三韻	3
7	李滉	1501-1570	『退溪集』 권2	宋企村純 俛仰亭 二首○公居在潭陽 時爲善山 將辭歸 寄書索題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退溪李先生]」	2
			『退溪集』 別集 권1	宋企村純 俛仰亭	1
8	梁山甫	1503-1557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梁瀟灑翁]	2
9	嚴昕	1508-1543	『十省堂集』 下	次俛仰亭韻	1
10	金麟厚	1510-1560	『河西集』 권5	俛仰亭三十詠 亭在潭陽府南十里 亭主宋新平 退老棲息于此 ▶『俛仰集』 권7 雜錄 「俛仰亭三十詠[金河西]」	30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河西金先生]	4
			『河西集』 권10	再題俛仰亭 二首	2
			『河西集』 권10	俛仰亭韻	2
11	李洪男	1515-1572	『汲古遺稿』 卷下	俛仰亭三十詠 爲企村作	30
12	黃俊良	1517-1563	『錦溪集』 권3 外集	俛仰亭次韻 三首 宋相純之亭	3
13	盧禎	1518-1578	『玉溪集』 권1	敬步俛仰亭韻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盧玉溪 本府使]」	2
			『玉溪集』 續集 권1	敬步俛仰亭韻	1

연번	작가	생몰년	문집명	작품명	작품수
14	朴淳	1523-1589	『思菴集』 권1	題宋四宰純 俛仰亭三十韻 ▶『俛仰集』 권7 雜錄 「俛仰亭三十詠[朴思菴]	30
15	高敬命	1533-1592	『霽峯集』 권3	次俛仰亭韻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 隆慶六年」	2
			『霽峯集』 권2	俛仰亭三十詠	30
16	尹斗壽	1533-1601	『梧陰遺稿』 권1	題潭陽俛仰亭 次壁上韻 亭是宋判 書純舊居 二首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尹梧陰]	2
17	梁大樸	1543-1592	『靑溪集』 卷1	俛仰亭三十詠 潭陽宋大憲純別業	30
18	張經世	1547-1615	『沙村集』 권2	題俛仰亭 二首 企村宋純	2
19	林梯	1549-1587	『俛仰集』 권7 雜錄	俛仰亭賦[林白湖]	1
20	任鍊	1560-1611	『鳴臯集』 卷3	俛仰亭 與諸益同賦	1
21	尹以明	1561-1646	『三節遺稿』 卷3	與客遊俛仰亭	1
22	趙緯韓	1567-1649	『玄谷集』 권6	俛仰亭 次子漸韻	1
23	梁慶遇	1568-1629	『霽湖集』 권8	登俛仰亭 示東岳令公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梁慶遇]	1
24	李安訥	1571-1637	『東岳集』 권9	俛仰亭 書示梁提督子漸	1
			『東岳集』 권9	俛仰亭 次壁上韻 亭在府南十里許 故四宰宋相公諱純之宅也 晚歲退 休 作亭以居 以終老云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 萬曆三十八年庚戌 孟秋上澣 [李東嶽 本府使], (1610)	4
			『東岳集』 권9	俛仰亭 次梁子漸韻	1
25	金友伋	1574-1643	『秋潭集』 권6	夢在俛仰亭 得日極斜陽盡句 覺後 仍尾之	1

연번	작가	생몰년	문집명	작품명	작품수
26	鄭弘溟	1582-1650	『崎庵集』 권5	俛仰亭 次壁上韻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 天啓三年辛酉 [鄭 崎翁 諱弘溟]」	1
			『崎庵集』 권8	俛仰亭 餞金晦卿 光赫	1
27	朴敦復	1584-1647	『滄洲集』 卷1	次俛仰亭韻	1
28	柳楫	1585-1651	『白石遺稿』 卷1	次俛仰亭 宋純 韻	1
29	金應祖	1587-1667	『鶴沙集』 권1	次宋企村 純 俛仰亭韻 二首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金鶴沙○本府使」	2
				次俛仰亭韻 崇禎紀元後五年壬申 孟秋下澣 [黃隴 本府使] 1632년 음력 7월 담양부사	
31	李景義	1590-1640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萬曆四十二年甲寅○ 李晚沙○諱景義]	2
32	李行進	1597-1665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 崇禎十三年庚辰孟秋 七夕 奉家嚴來遊 方莅本府 子知 務安 [李行進]	1
33	李柱天	1600-1654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丁亥秋京試官○李柱 天]	5
34	洪處亮	1607-1683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洪處亮] 1638년 『국조보감』 기록 등장	1
35	閔熙	1614-1687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閔熙]	1
36	李殷相	1617-1678	『東里集』 권1	潭陽俛仰亭 次蘇陽谷韻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李殷相」	1
				過故宋贊成俛仰亭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竹堂申混」	
38	崔商翼	1631-1699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崔商翼○本府使]	2
39	崔援	1634-?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崔援]	1

연번	작가	생몰년	문집명	작품명	작품수
40	柳域	1638-?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柳玄江 - 號 玄江[1633(숙종19) 진사시 합격]	1
41	金昌錫	1652-1720	『月灘集』 卷2	俛仰亭次板上韻 在潭陽	2
42	金昌翁	1653-1722	『三淵集』 拾遺 권11	瀟灑翁俛仰亭	2
43	玄績	1600년대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進士玄績 (정홍명(1582-1650) 만사 지음)	1
44	韓伯愈	1675-1742	『鰲川遺稿』 권1	過俛仰亭二首 (1717 순천부 훈도 교수)	2
45	魚有鵬	1678-1752	『俛仰集』 권7 雜錄	敬次俛仰亭壁上退陶先生 戊午秋 [魚有鵬 光州牧使]	1
46	林光弼	1682-1743	『俛仰集』 권7 雜錄	登俛仰亭贈主人 戊申 [林光弼 本府使]	1
47	申思迪	1683-?	『俛仰集』 권7 雜錄	登俛仰亭贈主人 壬戌秋 [申思迪 本府使]	1
48	朴世燾	1600 후반 ~1700초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朴世燾 (숙종 연간 활동 기록 있다)	2
49	洪鼎猷	1714-?	『俛仰集』 권7 雜錄	登俛仰亭 細成一絕 請和諸君子 [洪鼎猷 甲午府使]	1
50	趙宜陽	1719-1808	『梧竹齋文集』 卷4	宋企村俛仰亭	1
51	黃胤錫	1729-1791	『願齋遺藁』 권4	曉夢陪企村宋相公宴俛仰亭 ▶『俛仰集』 권7 雜錄 「東部直廬 夢遊俛仰亭 陪回榜宴有感 晚節一律 戊戌秋 同人」	1
			『願齋遺藁』 권4	偶留大秋有日 與宋光五 日佐 昆季叔侄李大元 在璣 曹汝謙 彥相同臨俛仰亭上 轉謁宋公墓下 口占一律 以備士林故事 ▶『俛仰集』 권7 雜錄 「游俛仰亭轉墓下 吟示同行 戊戌二月 [黃胤錫 前並撰]」	1
52	奇學敬	1741-1809	『謙齋集』 卷1	荷興俛仰亭	1
53	朴東蘅	1749-1808	『不變堂遺稿』 卷1	俛仰亭退溪韻	1

연번	작가	생몰년	문집명	작품명	작품수
54	金再鐸	1776-1846	『白波集』 卷1	俛仰亭敬次退溪先生韻	1
55	尹行恉	1762-1801		追詠俛仰亭三十景 次梁青溪	30
56	李最善	1825-1883	『石田集』 卷1	夏日登俛仰亭	1
57	鄭雲五	1846-1920	『碧棲遺稿』 卷上	俛仰亭夜酌	1
			『碧棲遺稿』 卷上	俛仰亭判籜用板上韻	1
58	李潤煌	1848-1921	『蘿碧堂遺稿』 卷1	與本倅登俛仰亭	1
59	李龍憲	1851-1895	『梧山遺稿』 권1	次俛仰亭韻	1
60	李建昌	1852-1898	『明美堂集』 권5	俛仰亭 亭在潭陽宋判書純故居 宋公有重名 年九十 退居於此 嘗出游 朴思菴 鄭松江 李青蓮 林白湖 四公 爲擔其輿 正廟時湖南道科以擔輿俛仰亭 命題	1
61	賣墨子	미상	『俛仰集』 권7 雜錄	敬次俛仰亭壁上退陶先生[賣墨子不知姓名]	1
62	韓世讓	미상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韓世讓]	2
63	許愨	미상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許愨]	2
64	金○○	미상	『俛仰集』 권7 雜錄	次俛仰亭韻[丁亥秋都事○金]	2
				합계	340

표에서 보듯, 면양정 한시 제영은 64명의 작가에 의해 340수의 작품이 창작되었다. 이들 차운 작품은 면양정에 직접 들러서 쓴 것도 있고, 꿈을 꾸거나 타인의 작품을 보고 상상해서 지은 것도 있다. 1533년에 면양정이 지어진 점과 작가 생년을 기준으로 하되 문학창작이 활발했을 나이를 감안하여 시기별 작가수를 대략 구분해보면 16세기 20명[연번1~20], 17세기 23명[연번21~43], 18세기 12명[연번44~55], 19세기에서 20세기 초 5명[연번56~60], 『면양집』에 수록되어 있으나 생몰년 미상인 경우가 4명[연번61~64]이다. 면양정이 창건된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면양정 제영이 꾸준히 창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면양정이 후인들에게 선현회고와 지속적인 문학창작의 공간이었음을 시사한다.

일찍이 南冥 曹植(1501-1572)은 <遊頭流錄>에서 “물을 보고 산을 보고, 그 속에 살았던 옛사람을 보고 당시와 현세를 보라.[看水看山 看人看世]”라고 하였다. 남명의 말처럼, 호남의 최고 조망을 자랑하는 면양정에 오른 시인들은 그 공간에서 승경을 조망하고 송순을 비롯한 선현들을 회고한 소회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담아내려는 심미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따라서 면양정은 호남최승처와 看人看世의 심미 공간이라 하겠다.

4. 御製詩題의 배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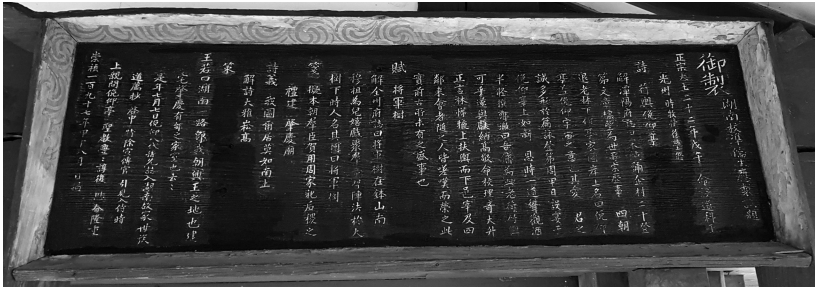
正祖는 호남의 재주 있는 선비들에게 명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먼저 호남 유생들에게 『御定大學衍義』, 『御定大學衍義補』, 『朱子大全節約』 등을 교정하고 깨끗이 베껴 쓰게 하였다. 그런 다음 광주목사 徐瑩修(1749-1824)에게 광주에 道科를 설치하여 유생들을 시험보게 하면서, 자신이 직접 詩·賦·箋·義·策 다섯 가지 文體의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경전의 뜻을 조목조목 묻고 모범 답안을 작성케 하였다. 그리하여 1798년(정조22) 음력 4월 13일[양력 5월 28일] 광주관아에서 과거가 실시되었고,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과 모친 혜경궁홍씨의 생일을 기념해 음력 6월 18일[양력 7월 31일] 직접 합격자를 발표하였다.⁵⁸⁾

이때 정조가 낸 시험 중 漢詩 과제의 제목이 “면양정 송순을 가마에 태우다 [荷輿俛仰亭]”이고, 운자는 亭이다.⁵⁹⁾ 이와 관련한 고사는 다음과 같다.

58) 『正祖實錄』 卷48, 正祖22년 4월 13일(丁未) 기사. “下經義閣問 程文課 題試御定大學朱書校正 湖南諸生于光州牧 教曰 御定大學朱書謄本之校正 體貌自別 校正諸生之試以功令之體 問以經書疑義 欲爲分等施賞 以酬校正之勞.”

『正祖實錄』 卷48, 正祖22년 6월 18일(庚戌) 기사. “先是 下御題詩賦箋義策五體 命光州牧使徐瑩修 賚往其邑 使御定大學衍義 衍義補及朱子大全節約等書 校正書寫儒生 咸詣府治應試 收券上送 至是親考 教曰 御定兩本校寫之勞 已可紀也 考訂處籤紙所錄 意見亦可驗所存之識解 道伯加選 又皆故家後承 特以詩賦箋義策題 五道分日試製 見其上來諸券 多有杰句佳作 惟今考能較長公學 爲湖南蘊抱之士 闢名之會也 問因悶旱 不違於期 應 近得甘澍 又當今日慶辰 始分等第.”

59) 宋純 『俛仰集』 卷5, 附錄, 「御製湖南校準儒生應製試題」에 의하면 다섯 가지 문체와 문체는 다음과 같다. 詩는 <荷輿俛仰亭>, 賦는 <將軍樹>, 箋은 <擬本朝群臣賀用周家祀后稷



송순이 과거급제한 지 60주년에 면양정에 잔치를 벌였는데, 처음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베푸는 것같이 하여 온 진라도가 떠들썩하였다. 주언이 한창 일 때, 홍문관수찬 鄭澈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어른을 위해 가마를 메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사간원헌납 高敬命, 홍문관교리 奇大升, 사간원정언 林梯가 부축하여 가마를 메고 내려왔다. 담양부사 및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따르니,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며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는 실로 옛날에도 없었던 성대한 일이다.⁶⁰⁾

송순은 27세 때인 1519년(중종14) 과거급제하였고, 이 回榜宴 행사는 1579년 10월에 진행되었다. 당시 宣祖가 꽃과 술을 하사하였기 때문에 처음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같이 된 셈이다.⁶¹⁾ 정조가 이 고사를 가져와 詩題로 삼은 것은 中宗·明宗·宣祖 세 조정에 걸쳐 베풀한 송순이고, 그의 면양정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른바 16세기 호남사림의 거두이자 호남시단의 중심

之禮 建肇慶廟>, 詩義는 <我圖爾居 莫如南土>, 策은 <王若曰 湖南一路 卽我朝興王之地也 建宅肇慶 有郤之家室也 (중략)>이다.

60) 宋純, 『俛仰集』 卷5, 附錄, 「御製湖南校準儒生應製試題」, “登第周甲日 設宴于俛仰亭上 如新恩時 一道聳觀 酒半 修撰鄭澈曰 吾儕爲此老荷竹輿可乎 遂與獻納高敬命 校理奇大升 正言林梯 掖上扶輿而下 邑宰及四隣來會者隨之 人皆嗟歎而榮之 此實前古所未有之盛事也” 이 “荷輿俛仰亭” 고사의 기록은 주의할 점이 있다. 송순의 회방연인 1579년을 기준으로, 기대승(1527-1572)은 생몰년과 대조하면 참석이 불가하다. 또 임제는 벼슬 이력에 승문원 정자는 있으나 사간원정언을 한 기록은 없다.

61) 宋純, 『俛仰集』 卷5, 附錄, 「議政府右參贊俛仰亭先生年譜」, “己卯萬曆七年 宣祖十二年 先生八十七歲 十月 先生家人設回榜宴于俛仰亭 上命戶曹賜花宜醞 一如新恩時”

이였으므로, 호남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또 정조는 1798년 7월 7일 초계문신으로 천거된 송순의 8대손 宋允喆(1756-1828)에게 특별히 武臣 겸 宣傳官을 하사하고 송순에 대해 묻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통해 면양정 송순에 대한 정조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시험 후 정조는 직접 호남 유생들의 試券을 채점하였고, 1등 高廷鳳·任興源에게는 급제를 하사하고, 2등 朴宗民·鄭胄煥은 初仕로 등용하고, 나머지는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⁶²⁾

이러한 고사를 간직한 송순과 면양정에 대해 후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1930년 「면양정중수기」를 쓴 李光秀(1873-1953)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正祖 임금은 성군이시다. 성군이기에 때문에 누추한 한 정자의 과거 행적에서 科擧로 사람을 선발할 적에 '면양정 송순을 가마에 태우다[荷輿俛仰亭]'라는 御製詩題로 나라의 선비를 시험하여 진사와 급제를 뽑았으니 어떠한가? 中宗조와 明宗조의 현신으로 호가 俛仰인 宋純의 공업과 명성과 덕행은 대대로 없어지지 않을 듯하다. 선양하려는 마음이 정조 임금의 마음에서 결단되어 특별히 면양정의 고사로 시제를 명하여 많은 선비를 시험하였으니, 아름답고 성대하도다. 선생의 성대한 덕과 큰 업적이 아니라면 退溪와 河西 등 한 시대의 명현이 어찌 이처럼 믿고 열복했겠으며 高峯 奇大升, 松江 鄭澈, 霧峯 高敬命, 白湖 林悌 등의 제현들이 어찌 기꺼이 선생을 죽여에 태웠겠는가. 선생의 정자에 오르는 것은 정조 임금이 선생의 숨겨진 덕을 드러냈기 때문이고, 게다가 교자의 사내[송순]가 현인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를 말미암아 선생의 이름은 더욱 높아지고, 선생의 정자도 따라서 드러나니, 면양정을 훼손할 수 있겠는가?⁶³⁾

62) 『正祖實錄』 卷48, 正祖22년 6월 18일(庚戌) 기사. “書下魁等人高廷鳳任興源賜第之, 次朴宗民鄭胄煥初仕調用, 餘施賞有差”

63) 李光秀, 『玉山集』 卷4, 「俛仰亭重修記 庚午」. “正宗大王聖君也 以聖王而擧選荒一孤亭之往蹟 御製詩題以荷輿俛仰亭 試一邦之士 而取進士及第 何哉 以中明朝賢臣 號俛仰宋純之勳業名德 恐其世久而泯沒也 闢揚之心 斷自聖衷 特以亭中故事命題 而試之多士 猶歎盛哉 非先生之盛德大業 退溪及河西 一代名賢 何若是傾信悅服 奇高峯鄭松江高霧峯林白湖 諸賢豈肯輿荷先生 於先生亭上也 聖君所以闢發幽光 尤以其驕夫之得此群賢也 由是 先生之名 益高

이광수는 송순에 대해서는 중종조와 명종조의 賢臣이고, 당대의 명현들을 열복케 한 盛德之士이며, 임금이 직접 幽德을 드러내 준 인물로 보고 있다. 또 누정 면양정은 당대 명현들의 교유처이고, 정조의 知遇를 입은 과거시험 詩題 대상처로 인식하고 있다. 기문을 쓴 시점[1930]과 시제 대상이 되었던 시점 [1798]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141년이다. 역사적 사건을 간직한 면양정 공간에 대한 기억의 지속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면양정은 송순의 과거급제 60주년, 이른바 회방연을 기념하여 모인 호남 대표 사림들이 그를 가마에 태운[荷輿俛仰亭] 고사가 있다. 正祖는 호남의 제주 있는 선비들에게 명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고자 그 고사를 활용하여 道科의 詩題로 삼았다. 이 때문에 면양정은 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과거시험 御製詩題의 배경처로 인식되고 있다.

IV. 결론

면양정은 송순이 1533년 현 담양군 봉산면 제월봉에 창건하였다. 면양정의 ‘俛仰’ 의미에 대해 沈仲良이 <俛仰亭記>에서 『荀子』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한 것은 『순자』나 중국 문헌 어디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으므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면양’의 의미는 孟子의 ‘君子三樂’에서 차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송순이 지은 「俛仰亭讚」 내용과 결부시켜보면, ‘면양’의 의미는 호연지기를 기반으로 사욕을 극복하여[克己] 부끄럼이 없는[無愧]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투영한 것이라 하겠다.

면양정 내력은 다음과 같다. 송순은 1524년 郭氏에게 터를 구매하였고, 1533년 3칸 草亭으로 창건하였다. 이후 벼슬살이로 방치되었는데, 1552년 담양부사 吳謙의 도움으로 중수하였다. 정유재란(1597) 때 소실된 후 언제 중수했는지

알 수 없지만, 1610년 담양부사 李安訥의 시를 통해 존재가 확인된다. 또 1654년 즈음 후손들에 의해 중수되었다. 이후 기문과 한시 작품을 통해 1700년, 1728년, 1738년, 1742년, 1774년에 건재가 확인된다. 1800년대의 면양정 존재는 李最善, 鄭雲五, 李潤煌 등의 시 제목에서 확인된다. 이후 부분 수리를 진행하다가 1930년 중수하였고, 1972년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 도비와 군비로 보수되었다. 이후 1989년 즈음 도비와 사재출연으로 중수하였고, 이것이 지금까지 전한다.

면양정의 공간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인식된다.

첫째, 無愧不忤의 지향처이다. 군자지향과 자연합일 추구한 송순의 자연 즐김은 道義의 삶과 직결되고, 이 道義는 바로 맹자가 浩然章에서 언급한 浩然之氣와 결합 된다. 이를 면양정 명칭 의미와 연결해서 보면, 송순은 도의와 결부한 호연지기를 기반으로 사욕을 극복하여[克己] 부끄럼이 없는[無愧] 삶을 살아가고자 한 것이다. 즉 송순은 無愧不忤의 의식을 면양정에 투영한 것이다. 따라서 면양정은 바로 無愧不忤의 지향처라 할 수 있다.

둘째, 湖南詩壇의 선도 공간이다. 송순의 시조와 가사작품은 호남시단을 비롯한 담양지역 문인들에게 가사작품 창작의 動因이 되었다. 또 그의 면양정은 자신의 문학창작 활동 공간이자, 호남시단을 이끄는 중추 공간이었다. 따라서 면양정은 호남시단의 선도 공간이라 하겠다.

셋째, 湖南最勝處와 看人看世의 심미 공간이다. 호남의 최고 조망을 자랑하는 면양정에 오른 시인들은 그 공간에서 승경을 조망하고 송순을 비롯한 선현들을 회고한 소회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담아내려는 심미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따라서 면양정은 호남최승처와 看人看世의 심미 공간이라 하겠다.

넷째, 御製詩題의 배경처이다. 면양정은 송순의 과거급제 60주년, 이른바 회방연을 기념하여 모인 호남 대표 사림들이 그를 가마에 태운[荷輿俛仰亭] 고사가 있다. 正祖는 호남의 재주 있는 선비들에게 명성을 드러낼 기회를 주고자 그 고사를 활용하여 道科의 詩題로 삼았다. 이 때문에 면양정은 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과거시험 御製詩題의 배경처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고는 면양정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담양지역 여타 누정의 문화와 비교분석을 통한 문화사적 검토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맹자』
『荀子』
朱熹, 『맹자집주』
『正祖實錄』
奇大升, 『高峯集』
李光秀, 『玉山集』
李錫禧 編, 『秋成誌』
李潤煌, 『蘿碧堂遺稿』
李最善, 『石田集』
蘇世讓, 『陽谷集』
宋 純, 『俛仰集』
鄭雲五, 『碧棲遺稿』
許 穆, 『記言』

2. 논저

- 김동수 편, 「누정관계 자료」, 『호남학연구』 제14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85.
- 김두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본 면양정 입지에 관한 연구 : [면양정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18권 2호, 한국정원학회, 2000.
- 류 짜, 「한국 16~17세기 전통원림(園林)의 시각적 경관 분석 : 한국 전남 담양 지방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상원, 「송순의 면양정 구축과 <면양정가> 창작 시기」,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5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5.
(UCI: G704-001062.2015..35.003)
- 金成基, 「俛仰 宋純 時調의 傳承 研究」, 『時調學論叢』 제16집, 2000. 60쪽 참조
- 김승현, 「조선시대 정자건축의 시기각적 분석에 관한 연구 : 자연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신중 외, 『담양의 누정기행 누정』, 담양문화원, 2009, 8쪽~21쪽 참조.

담양군지 보정판 발간위원회, 『潭陽郡誌』下, 제5편 교육·문화, 희망문화사, 2002.
899쪽

박명희, 「無等山圈 누정문학의 문화지도」, 『국학연구논총』 제16집, 태민국학연구
원, 2015.

(UCI: G704-SER000003095.2015..16.005)

박영주, 『오늘의 가사문학』 제2호(가을호), 고요아침, 2014. 61쪽~64쪽 참조
신동관, 「'간(間)' 개념에 의한 亭子空間의 연구 : 주거건축 內 亭子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유영광, 「無等山 周邊 亭子の 建築的 特性에 관한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2.

이현우, 「16~18세기 누정 문화경관의 의미론적 해석」,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1.

조태성, 「俛과 仰, 두 개의 시선-〈면양정가〉의 감성적 독해」, 『한국시가문화연
구』 제29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UCI: G704-001062.2012..29.013)

| Abstract |

A Deliberation on the History and Space Perception of Myeonangjeong

Kim, Hyun-jin

Academic Research Professor in Academic Research of Humanities at Suncheon Univ.

This thesis tried to think about the history and spatial perception of Myeonangjeong(俛仰亭) in depth. It seem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meaning of the name '俛仰' took after '君子三樂' by Mencius, which reflects the wish to move on shameless life by overcoming selfishness based on Hoyeonjigi. Myeonangjeong is a 3 section a grass pavilion Nujeong(草亭) built by Song Soon(宋純) in 1533 on Jewol Peak in Bongsan-myeon, Damyang-gun, There was the first fix of it in 1552. Later, it got destroyed over Jeong-Yoo-Jae-ran (1597), and then restored before 1610, It got refixed by descendants in 1654. After that, its existence was found again in the 1700s and 1800s, reviewing old documents and Jeyeong poetry. Then it got refixed in 1930. It got designated as Jeollanam-do Local Cultural Heritage No. 6 in 1972. It got renovated in 1979 and finally refixed around 1989. Like this, this is the brief history of it known and passed down so far.

Myeonangjeong's space gets recognized in four different ways. First, it looks at the direction of feel no shame[無愧不忤]. Song Soon's enjoyment of nature, seeking wise man orientation and natural unity got directly connected to the moral life and also to the

vastness[浩然之氣] of Mencius. Connecting it to the meaning of Jeongja name, 'Myeonang', the consciousness to live shameless life by overcoming selfishness based on Hoyeonji got reflected in it. Second, it talks about the leading space of Honam region Poetry World[湖南詩壇]. Song Soon's poetry and lyric works became the driving force of creating lyric works for the writers in Damyang including Honam Poetry Group. Myeonangjeong was core space leading the Honam Poetry Group. Third, it talks about esthetic space of 湖南最勝處 and 看人看世. The poets who climbed to Myeonangjeong which boasts of the best view of Honam overlooked landscape there and never stopped their esthetic activity to represent the impressions borne by Seunggyeong, Songsunand, and other preeminences in that space through reminiscences. Fourth, it talks about the background of 御製詩題. In the commemoration of Song Soon's 60th anniversary of passing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to recruit rank officials, so-called Hoebang-yeon, Honam representatives got gathered to commemorate Song Soon's 60th anniversary. There was a story which tells the representatives of Honam gathered there got him on sedan chair[荷輿俛仰亭]. In order to give the talented scholars of Honam an opportunity to obtain their fame, 正祖 took advantage of the story as poetic subject (詩題) of Dogwa (道科). Since then, it has been passed down and spoken by posterity.

Key words : Song Soon, Myeonangjeong, Space Perception, feel no shame[無愧不作], Honam region Poetry World[湖南詩壇], Honam Choi Seungcheo, Aesthetic Space, 御製詩題

투고일 : 2021년 1월 18일 심사기간 : 2월 1일 - 2월 12일 게재확정일 : 2월 15일